

2024.

9.19(목) 19:00

9.20(금) 19:00

전라감영 선화당 야외무대

전라감영교방무재현

선화당에  
춘꽃이  
피었습니다.



| 주최·주관 | 전북특별자치도



사) 전라삼현승무보존회

총 예술감독	문정근
연출	김정수
음악감독	송영국
안무재현	문정근 박성호
의상	김지원
조명디자인	최원혁
무대	세종기획
무대감독	최형범
영상기록	김정환
기획	최재희
사진	고기하



### 교방이란?

지방관아에 소속된 건물의 하나로 대개는 관문 밖 객사 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관기가 약, 가, 무를 익히고, 익힌 기녀들에 의해 관변의 여러 행사에 참가하여 지방의 관변문화를 담당하던 곳을 말한다.

조선시대에 전라도와 제주도를 관할하던 전라감영이 전주에 있었으니 그에 따른 교방이 있었고 여기에서 약, 가, 무를 담당하여 기예를 익혔으며 관변 여러 행사에 참여하여 풍류문화를 즐겼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기록이나 자료가 별로 없어서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를 알 수 없고 그 내용도 알 수가 없으나 각 지방지에 공연에 쓰였던 무용도구가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때 그 규모나 무용의 종류를 추측할 따름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주에서 현감과 목사까지 지낸 박원 정헌석이 쓴 '교방가요'에 19세기 중 후반 교방의 약, 가, 무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교방문화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고, 추측할 수 있도록 저술하여 놓으셨고, 성무경이 번역해 놓아 현대를 살아가는 무용인이나 교방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진주 교방은 남원지역에서 가깝고 관기들이 남원, 전주 등 서로 왕래를 하였기 때문에 전주지방의 교방무도 거의 같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필자는 국립국악원에 근무를 한 적이 있다. 언제부턴가 전라감영의 교방무를 재현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자료가 부족한지라 막막하여 할 수가 없었으나 용기를 내어 연구하고 교방가요 책에 근거하여 재현해 본다.

이 무대를 만들기 까지 협조하여 주신 전주시청 문화유산과 출연자 및 스태프, 이 더위에도 맘을 홀리며 열심히 연습한 단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2024. 9

전라삼현승무보존회 예술감독 **문정근**



### 초대합니다 전라감영교방무 재현에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시간과 교방무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감영 교방무 재현 선화당에 춤꽃이 피었습니다' 공연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공연을 준비해 주신 문정근 (사)전라삼현승무보존회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감영에서 전통 교방무가 되살아납니다. 전라도를 총괄하던 전라감영 복원은 전북 자존 시대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상징합니다. 이 공간에서 선조들이 전승해 오던 전통 교방무를 재현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전통예술을 재조명하는 일이고, 현대 예술로 되살리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전북 전통문화의 발전과 계승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교방무 고증과 복원을 위한 노고와 열정에 찬사를 보냅니다. 「교방가요」라는 한 권의 책에 의지해 선화당의 교방무를 재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이 전북 예술인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전통 예술에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선화당에 핀 춤꽃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공연은 전라감영의 역사와 교방무의 예술적 가치를 알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통의 혼과 열이 담긴 교방무 공연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새롭게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4. 9.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선화당에 춤꽃이 피었습니다 전라감영 교방무 재현

전라감영 교방무를 재현하는 '선화당에 춤꽃이 피었습니다' 무대가 마련되는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귀한 무대를 준비하신 (사)전라삼현승무보존회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라감영 교방무는 전라감영 교방청에서 행해져온 가무약입니다. 전라감영 교방청 기녀들은 각종 행사에서 풍류를 선보이며 당대 문화예술을 발전시키고 전승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재현행사는 전라삼현승무보존회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을 발굴하고 전승하기 위해 공을 들인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교방가요』를 토대로 교방무를 고증하고 복원했다고 들었습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라감영 교방무가 선화당에서 재현돼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전라감영 복원 이후 방문객이 잇따르고 있지만 콘텐츠가 빈약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교방무 재현으로 의미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라감영 교방무 재현 공연을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어렵게 복원한 교방무가 전통공연예술 콘텐츠로 활발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교방무 재현에 힘써주신 문정근 감독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기회를 빌어 전북의 잊혀져가는 문화 예술자원이 새롭게 주목받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문승우



공연으로 이끄는 브랜드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풍요로운 계절에 열리는 <전라감영 교방무 연희(演戲)도> 재현 '선화당에 춤 꽃이 피었습니다'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라감영은 전북지역 천년역사와 함께 나아갈 자산으로서, 전라도의 자긍심이며, 전주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국가유산입니다. 이에 전주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전라감영의 예술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전북 전통춤의 정체성을 보존해 가는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사)전라삼현승무보존회(대표 문정근) 주관으로 선보이는 '선화당에 춤꽃이 피었습니다'는 전라감영에서 행하였던 교방무를 재현한 것으로, 전북 전통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브랜드 공연으로 이끄는 역할을 할 거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전통춤 전승을 위해 노력해 온 (사)전라삼현승무보존회 문정근 회장님과 공연을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춤사위가 우리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 전북의 정서와 전통문화 예술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9

전주시장 우범기



전라교방무, 그 뿌리를 찾아서

본래 교방(敎坊)은 고려시대 기생학교였는데, 조선시대에 와 장악원의 아악을 맡았던 좌방과 속악을 맡았던 우방을 이르는 말이었다. 즉 조선시대에 기녀의 가무를 관장하던 국가 기관이었던 이 교방은 전국 주요 도시의 지방 관아에 소속한 관청의 하나로, 여성 예능인의 양성 및 관리기관의 역할을 해왔다.

오늘날 교방무라 하면, 고려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춤을 말하며, 당악정재와 향악정재, 지방 교방과 권번에서 기녀들에 의해 계승된 춤을 통틀어 일컫는다. 일제강점기에 권번에 소속된 기녀들의 춤까지 포괄하여 이들이 추었던 전통춤을 일반적으로 교방무로 통칭하고 오늘날 전통무의 하나로 전승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교방무'는 크게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교방 소속 기녀가 교방에서 학습하고 공연했던 모든 전통춤을 총괄한 당악정재와 향악정재 뿐 아니라 각 지방 교방과 권번에서 기녀들에 의해 계승된 춤을 통틀어 함축한 '교방검무', '교방굿거리춤', '교방승무', '교방살풀이춤' 등과 같이 고도의 예술성을 갖춘 전통시대 기녀들이 추었던 춤들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근대 이후 기녀의 춤 문화를 의미하는 교방무라는 이름으로 공연되기도 하면서 재창작된 안무들까지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기도 하다.

고려 교방에 관한 기록으로 현종(顯宗) 즉위년(1009)에 궁중에 소속된 '교방의 궁녀 100여 명을 파견하여 내보낸 것'이라는 점에서 교방의 역사는 천년 이상을 헤아린다고 볼 수 있다. 고려 초기 팔관회, 연등회 등의 행사에 교방 사람들의 춤과 노래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교방춤 혹은 교방무라는 말은 근대에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다.

조선시대의 여기(女妓)·관기(官妓)·창기(娼妓, 倡妓)는 여악(女樂)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전국의 교방에 여기·여악이 있었으며, 여악은 중앙에서는 궁중의 내연을 담당하며 관기(官妓)라 칭해지며 존속했고, 지방의 경우 외국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서, 군사의 위로 및 지역 잔치를 위해서 존재했다.

1902년 협률사 극장에서 연행된 「소춘대유희(笑春臺遊戲)」 공연에 기녀의 춤과 노래, 광대의 기예와 판소리 및 음악연주 등이 종합적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공연이 민간에게도 개방되어 서구식 공연문화의 출발점을 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방무가 현대공연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후 일제강점기 권번은 교방의 역사를 계승한 춤 문화의 전승통로가 되긴 하였지만 권번의 기생문화는 그들을 천시하고 경멸하는 사회 풍토 속에 있었기에 '권번'이나 '기생춤'이라는 표현이 아닌 '교방무'라 칭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 예술적 계승을 자긍심으로 보여주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교방무의 일부는 국가무형유산으로 또는 시도무형유산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는데, 「승무」, 「살풀이춤」, 「교방굿거리춤」, 「예기무」, 「교방장고춤」, 「입춤」, 「소고춤」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전라감영이 있던 자리에서 대표적 교방가무를 선보이는 뜻깊은 공연을 마련하였다.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를 아우르는 전라감영에서 고중에 의해 최대한 근사하게 재현하고자 한 이 공연에 검무, 교방굿거리, 교방 승무, 무고, 포구락 등 우리 전통무의 진면목을 선보이게 된다. 사라져가는 우리 것들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의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4. 9

전주대학교 공연방송연기학과 교수 김정수

## 음악의 글



### 전라감영 교방무 음악재현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승무 보유자 문정근 선생과 전라감영에서 실연(實演)되었던 교방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논의는 조금씩 실천으로 옮겨서 서서히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시작하였고 전라감영 교방무 재현 '선화당에 춤 꽃이 피었습니다.'로 재현공연이 마련되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실현되었던 무형유산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공존하고 공동체 사회 안에서 함께 호흡할 때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서 존재한다. 무형유산이 이처럼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인간이 전승 주체이면서 전수·계승의 매개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명력을 상실하면, 흔적없이 사멸(死滅)될 수밖에 없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흔적만 남기고 사라진 무형유산이 바로 생명력을 잃어 서서히 사라진 것이다.

무형유산은 공예와 예능을 포함한다. 공예는 유적지에서 발굴된 조금만 껍린(片鱗)으로 흔적을 추론할 수 있지만, 예능은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복원되기 때문에 생명력을 붙여넣기가 쉽지 않다. 또한 복원과 재현의 경계는 명확하기에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전라감영 교방무 재현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춤뿐만 아니라 음악도 재현 개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

전라감영 교방무 재현 '선화당에 춤 꽃이 피었습니다.'에 재현된 첫 번째 작품은 전라검무이다. 전라검무는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1712~1775)와 금릉(金陵) 남공철(南公軾, 1760~1840)의 시문(詩文)에 나타나는 전주 한벽당 검무 문헌 기록과 1895년 편찬한 호남읍지(湖南邑誌)에 전북지역 검무 자료가 남아있다. 또한 일제강점기 교방과 권번에서 검무를 연행하였다는 실존 인물도 존재하지만, 전승 체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단절된 상태이다. 다만 1960년대 정자선, 정형인, 정모란과 함께 활동한 박금슬(朴馨蓆, 1922~1983)에 의해 전라검무 일부가 문정근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따라서 박금슬, 문정근으로 전승되는 전라검무를 재구성하였고 당시 전북지역에서 반주음악으로 사용하던 전라삼현종 민삼현 가락과 장단을 재구성하여 전라검무 음악을 재현하였다.

교방승무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신패동 명인의 거문고 풍류가락과 산조가락, 전라삼현가락을 장단별로 재구성하여 반주음악으로 재현하였다. 특히 반주음악을 재현하기 위해서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예인들의 가락과 선율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전라고무(鼓舞) 반주음악도 전북 익산 삼기면 오룡리 출신 신패동 명인의 향계 풍류가락을 기반으로 무용 장단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중군부분 창사는 정음사 초창 부분을 삽입하였고 '지화자 지화자'라는 후렴 부분은 새롭게 첨가하였다.

전라포구락 재현은 1895년 편찬한 『호남읍지(湖南邑誌)』 16책 『무주부읍지(茂朱府邑誌)』에 무주부 교방에서는 포구락·고무·선유락·검무·승무·현선도 등 6종의 춤과 이에 수반된 반주, 그리고 소품목록 기록이 존재한다. 이는 오늘날 궁중무용으로 분류되는 포구락(抛毬樂)과 선유락(船遊樂)이 지방 교방에서도 연희(演戲)되었었다는 반증자료이다. 이는 분명 전북지역에서도 궁중무용인 포구락이 존재하였고 실현되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다만 문헌자료만 존재할 뿐 전승체계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다. 전라포구락도 향계풍류 가락을 무용장단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대한민국 최초 무형유산 거문고산조 보유자 신패동의 향계풍류와 전라삼현육각 가락 일부만이 남아있어 교방무 음악을 재현하는데 제한적인 수밖에 없었다.

2024. 9

백제예술대학교 송영국

— 전라감영 교방무 재현 선화당에 춤꽃이 피었습니다. —

## 의상의 글



### 전라교방무, 그 뿌리를 찾아서

K-pop을 위시하여 한류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공감 받을 수 있는 주제의 한국의 전통 음식과 문화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일상적인 분야의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는 이러한 전통문화콘텐츠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세계가 주목하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급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들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지역 콘텐츠의 소비가 확산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듯 지역의 고유한 정신을 담은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전라감영의 교방무복식을 춤과 함께 재현 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대의 정신을 함축한 교방 문화는 전통의 보존과 계승 차원에서 현대적인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가치를 충분히 지닌다고 보았고 전통을 지키기 위한 의식을 되짚어 보기 위해 정현석의 『교방가요』안의 복식 도설들을 현대적 감각의 한복으로 재해석 하여 선보이고자 합니다.

전라 검무, 교방굿거리춤, 교방승무, 전라고무, 전라포구락 다섯 가지 춤을 콘셉트로 진행되고 색, 실, 루엣, 소품하나까지 옛그림의 그림자를 가시화 하고자 노력하되, 현대적인 감수성 또한 배제하지 않은 세련됨을 더하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전통예술문화를 대표하는 거점 도시로서의 전주에 전라감영이라는 고유의 문화적 스토리텔링을 더하여 한류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K-culture의 세계적인 확산과 대중화에 첨병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음에 그 복식사적 의미 또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작업하였습니다.

교방가요 도설안에서 차용된 전통의 복식 아이템을 바탕으로 각 복식의 형태와 실루엣, 구성 방법, 색상 등을 미니멀하게 재해석하고 모던하게 치환하여 공연의상을 구원 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업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철학과 미의식을 현대적으로 풀어감에 있어 『교방가요』의 춤과 공연의 기분이 되는 절자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대중에게 소외되고 있는 전통의 요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견인하고 이를 통해 전통문화콘텐츠의 대중화와 영역 확장을 도모 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2024. 9

(주)모리노리 대표 김지현

— 전라감영 교방무 재현 선화당에 춤꽃이 피었습니다. —

전라검무 — 이윤경 김연실 김나연 문지윤

신광수 '한백당 12곡' 중  
 “한백당에서 검무, 춤 한창이네”  
 “유리빛 푸른물과 그림자 떠돌아 머리 돌려 추는 춤 서릿  
 발 갈네” 위의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주지방에는 교방이  
 있어 검무 등 교방무가 성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동작은 가늠하기 어렵고 그 전승이 끊겨 오고 있었다.  
 이번 공연에는 교방가요에 나오는 내용을 기반으로 전주  
 의 민삼현 음악과 고 정경태님이 쓴 '국악보'에 나오는 검  
 무의 동작과 범무의 동작, 그리고 '무예도보통지'에 나오  
 는 쌍검 동작을 기반으로 하여 검무를 구성하였다. 본 검  
 무를 재현하기 위해 검무의 본질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검을 사용하는 이치의 연구와 더불어 수벽치기 원리(우  
 리 무예연구가 김산의 고증)로 검무의 동작을 고증 재현  
 하여 전라 검무라 칭하고 공연 한다. 대표적인 동작으로  
 는 진격퇴, 우마발사위, 도리깨연풍, 오화전신, 지조염의  
 등이 있다.



교방 굿거리 춤 — 박은주

전주교방에서 추어지던 춤. 다른 말로 기방굿거리, 굿거  
 리 춤, 수건 춤, 입춤으로 불리어지기도 한다. 고종시 궁  
 중무희였던 최완자의 굿거리 춤에 김녹주의 소고춤을 덧  
 대어 김수악이 완성한 춤으로 기품 있는 몸자세와 발디딤  
 이 특징이다. 그 당시 명기들로 하여금 판소리와 함께 진  
 행 하였으며 춤사위의 명칭도 대삼 소삼, 잉어걸이, 완자  
 걸이 등 음악의 창법이나 가락의 호칭과 혼합하여 쓰고 있  
 다. 이 굿거리 춤은 한국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 흥, 멋, 태  
 를 고루 갖춘 춤으로 정립되어져 춤의 성격은 차분하고 끈  
 끈하며 섬세하면서 애절한 춤으로 정중동의 신비롭고 환  
 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어 무아지경으로 이르게 하는 매  
 렷을 갖추고 있다



교방승무 — 노창 | 김지은 | 라시 | 이윤경 | 한량 | 오대원 | 심자 | 홍슬기 | 소기 | 이소은

이 춤의 내용은 한마당의 잡희에 불과하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권선징악을 품고 있다.  
 여자는 처음에 정조를 품은 것 같지만 끝내는 음란해 지고, 선비는 지조를 지키는 것 같  
 지만 끝내는 어그러지며, 스님은 계율을 행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과거를 하고 마는,  
 곧 인간 세상의 회유에 휩쓸려 자신을 이겨내는 자가 드물다는 내용.  
 이 승무는 오늘날 추는 승무가 아니라 배역을 갖추고 흡사 탈춤의 노장과장을 연상하  
 게 하는 무언극 형태의 극무(劇舞)임. 탈을 쓰지 않고 추는 춤으로 탈춤의 다른 교방정  
 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고무(鼓舞) — 김연실 김나연 홍슬기 문지윤

고려사 악지에 기록 되어 고려시대부터 전하는 향악정제의 하나이다. 고려 충렬왕때  
 시중 이혼이 영해에 귀양 갔을 때 바다위에 뜬 뗏목을 얻어 무고(舞鼓)를 만들어 추었  
 다는 설에서 비롯된다고 전한다. 오늘날 추는 승전무(복춤과 검무)에서 복춤이 원래  
 고무의 원형이라는 점에서 고무를 재현 해 보고자 한다.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예를 들  
 면 복춤을 출 때 불리는 창사가 정음사를 부르고 있는 점이며, 낙지자 오날이야, 지화  
 지화 지화자 지화호라 지화자 등 창사가 그대로 불리고 있다는 점을 들어 오늘날 추고  
 있는 승전무가 고무의 원래무용이 아닐까 싶다. 이춤은 무고라고도 불리며 지금도 행  
 해지는 정제의 하나이다.

포구락무(抛毬樂舞) — 황은주 박은주 이윤경 김윤하 박지은  
 신혜원 채윤미 문서희 이소은

고려시대부터 연행된 당악정제의 하나이다. 이 춤은 고려 문종때 유입되어 거의 900년  
 간이나 전승된 정제의 하나로, 춤의 내용은 편을 갈라서 춤을 추는데 용알을 풍류안에  
 넣으면 꽃을 머리에 꽂아 주는 상을 주고, 넣지 못하면 봉필이 뺨에 절목을 함으로써 벌  
 을 주는 일종의 놀이성을 가진 정제의 하나이다.



STAFF



예술감독 문정근



연출 김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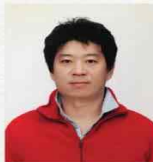
음악감독 송영국



의상감독 김지원



조안무 박성호



조명디자인 최원혁



무대감독 최형범



영상기록 김정환



사진기록 고기하



기획 최재희

출연



황은주



박은주



이윤경



김윤하



김연실



박지은



신혜원



채윤미



김나연



문서희



홍슬기



문지윤



이소은



김지춘



오대원

## 반주음악



피리 이재관



피리 박해민



대금 조용오



해금 장윤미



아쟁 김 은



거문고 송호은



가야금 오나영



정고 오흥민



소리 김경은

## 객원 출연



최정은



이우송



장옥함금



최재호

## 소개

**사단법인 전라삼현승무 보존회**는 우리 전통춤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국전통 무용의 계승, 발전 및 전라삼현승무의 체계적 연구를 목적으로 1996년 예향의 도시 전주에서 창단된 공연 전문예술단체이다. 본 단체 설립취지는 전라삼현승무를 비롯한 민속무용과 민속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전통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데 있으며, 호남지역에 전승되어온 승무를 계승하고 전승시키고자 전수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다.

그동안 전북춤 뿌리 찾기를 주제로 <전라삼현승무>, <전주학무>, <전주 민살풀이> 등의 발굴과 보존 그리고 작품화 공연을 이어오고 있으며, 특히 전라도 사람들의 삶과 애환이 담긴 춤과 지역적으로 퍼져있는 소재들을 춤으로 승화시켜 전북도의 독창적 전통예술 복원 사업과 함께 전북지역의 사라져가는 민속무용 제발굴 및 복원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의 찬란한 천년 전주시대를 열어갈 전주시역의 핵심 콘텐츠로서의 가치를 확인하며, 우리 것에 대한 정신과 흥과 멋을 보급하고자 노력해 가고 있다.





**사)전라삼현승무 보존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19 2층  
mjk5385@hanmail.net, 010 4948 2351